

# 美무기 구매 한국지위 격상

## 美하원 'NATO+3국' 수준 향상 법안 상정

한국의 미국산 군사장비구매(FMS) 지위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회원국+3국(일본·호주·뉴질랜드)' 수준으로 향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이 이르면 오는 30일 주무상임위원 하원 외교위원회에 상정돼 처리될 전망이다.

하원 외교위 산하 아태환경소위의 에니 팔레오마배가 위원장은 23일 오후 열린 한미동맹관련 청문회에서 "한국의 미국산 무기구매지위를 NATO+3국 수준으로 향상하는 문제가 오래 지체돼 왔다"면서 "이런 불공정을 시정하기 위해 한미방위협력강화법(HR 5443)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말했다.

팔레오마배가 위원장은 이어 "하워드 버번 외교위원장이 이와 같은

법안 내용을 안보동맹관련법안에 포함해 내주에 외교위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의 FMS지위를 격상하는 내용은 담은 안보동맹관련법안이 오는 30일 하원 외교위에 상정될 예정이며, 이미 의원들간에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곧바로 이날 외교위를 통과, 하원 전체회의로 넘겨질 가능성도 있다. 또 이럴 경우 이르면 상반기에 법안으로 확정될 수도 있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한국은 해마다 미국으로부터 막대한 군사장비를 도입하고 있지만 'NATO회원국+3국'보다 한 단계 낮은 대우를 받고 있어 1천400만달러 이상의 군사장비를 팔 경우 미국 정부가 이를 의회에 보고해야 하며 의

회는 이를 30일간 검토, 판매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FMS 지위가 NATO+3국 수준으로 격상되면 미 정부는 2천500만달러 이상의 군사장비를 한국정부에 판매할 경우에만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의 검토기간도 15일로 단축돼 한국의 미국산 군사장비 구매가 훨씬 수월해지고 제재에 필요한 군사장비를 구매, 효율성도 높일 수 있게 된다.

의회 소식통은 "한국의 FMS 지위를 NATO+3국 수준으로 격상하는 법안은 더 빨리 처리될 수도 있었다"면서 "하원 외교위가 이를 개별법안으로 처리하지 않고 다른 안보동맹관련 법안에 포함하기로 해 처리가 지연된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힐러리 실속 없는 승리

## 펜실베이니아 경선서 오바마에 대의원수 6~9명밖에 못 줬혀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의 종반 승부처였던 펜실베이니아 프라이머리(예비선거)에서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이 값진 승리를 얻기는 했지만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과 대의원 수 격차를 줄이는데는 별로 실속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언론은 힐러리가 일단 경선레이스를 완주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큰 승리(big win)'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숫자게임만 놓고 보면 극적인 대역전에 대한 기대수준은 크게 낮아진다.

AP통신이 자체적으로 펜실베이니아 경선의 후보별 대의원 확보 수를 추산한 결과, 힐러리는 총 158명의 대의원을 가운데 적어도 82명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오바마는 최소 73명을 확보했고, 최종 집계가 이뤄진다면 3명을 추가로 끌어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관심이 집중됐던 펜실베이니아 경선에서 힐러리가 좁힌 대의원 수는 6명~9명 정도에 그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경선에서 오바마는 슈퍼대의원을 포함해 1천723.5명의 대의원을, 힐러리는 1천592.5명의 대의원을 확보하게 됐다고 AP는 자체조사를 근거로 분석했다.

앞으로 남은 경선은 5월6일 노스 캐롤라이나(134명)와 인디애나(83명)를 필두로, 5월13일 웨스트 버지니아(39명), 5월20일 캔터키(60명), 오리건(65명), 6월3일 몬태나(24명)와 사우스 다코타(23명) 등 7개 주 뿐이다. 미국령 괌(5월3일, 9명)과 푸에르토리코(6월7일, 56명)를 합치면 9개 지역의 경선이 남아 있다.

남은 경선을 힐러리가 모두 이긴다고 해도 대의원 수에서 오바마를 뒤집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두 후보 가운데 누구도 후보지명에 필요한 2천25명의 대의원을 확보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돼 결국 슈퍼대의원들이 후보 지명의 열쇠를 쥐게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미국 민주당 대선주자 힐러리 로드햄 클린턴 상원의원(뉴욕주)이 23일(현지 시각) 인디애나폴리스의 '아메리칸 리전 몰'에서 연설에 앞서 지지자들의 갈채에 답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 北 평양소주 美서 곧 판매

북한 핵문제 해법이 아직 확실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대표적 소주인 평양소주가 곧 미국에서 곧 판매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평양소주의 미국 수입을 맡은 뉴욕의 미주조선평양무역회사 박일우(58) 대표는 23일 언론과의 전화통화에서 "평양소주가 22일 미국에 도착해 통관과 검사 등 수입 절차가 오늘 모두 마무리 됐다"며 "다음주 초쯤 판매업체 창고로 운송돼 곧 판매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美정부 수입 허가 통관 절차 마무리

평양소주의 미국 총판매체인 탕스리커의 당갑증(61) 사장도 "컨테이너 두 대 분량의 평양소주 1천660상자(1상자당 24병)가 22일 뉴저지의 엘리자베스 항구에 도착했고 오늘 통관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의 허가 아래 이뤄진 평양소주의 수입은 뉴욕의 미주조선평양무역회사가 맡고, 탕스리커는 판매를 맡아 식당이나 주류판매점에 공급하게 된다.

당 사장은 "북한의 술이 미국에 정식 수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곧 판매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평양소주의 미국 내 수입은 약 5년 전부터 추진돼 왔지만 차질을 빚어왔다. /연합뉴스

# “李대통령 대북정책 햇볕정책과 상통”

## 김대중 前대통령 미 터프츠대 강연

김대중 전 대통령은 23일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햇볕정책과 같은 길을 가기 시작하고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보스턴을 방문중인 김 전 대통령은 이날 터프츠대 찰스센터 다이닝 룸에서 90여 명과 오찬을 함께 하며 한 강연과 토론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햇볕정책이라는 말만 사용하지 않았지, 사실은 햇볕정책과 거의 상통하는 말씀을 개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햇볕정책은 모든 것을 대화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풀어가고 서로 공동승리하는, 윈-윈의 협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이 점에 있어서

는 미국 부시 정권이나 이명박 정부나 저의 의견이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표현만 다르지 실제로는 같은 길을 가기 시작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화를 거부하던 부시 대통령의 대북정책 시정을 "충심으로 환영"하며 "북·미 간의 주고받는 협상을 통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 전 대통령은 이어 "미국이 6자 회담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세력 균형을 위해서 또 안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면서 2.13합의를 통해 북핵 문제 해결 이후 6자회담을 동북

아 평화기기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매우 중요한 일이고 아주 잘된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미국이 한반도에 계속 남아 안정적 역할을 해야 하며,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도 미군이 북한에 대해서 공격을 목적으로 있어서는 안된다는 조건만 충족되면 한반도에 주둔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얘기했다"면서 "미국이 한반도에 있는 것은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전 대통령은 이날 강연에 앞서 로런스 바카우 터프츠대 총장, 주한 미국 대사를 지낸 에드워드 보스워스 플레처스쿨 학장 등과 만나 환담을 나눴으며 25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다. /연합뉴스

## 日 미국산 쇠고기 등골뼈 발견 파문

일본에서 보관 중이던 미국산 수입 쇠고기에서 등골뼈가 발견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들 등뼈는 대형 음식점 체인 '요시노야(吉野家)'가 수입상사인 '이토츠상사'를 통해 지난해 8월 미국 내셔널 비프의 캘리포니아 공장에서 수입

한 쇠고기 700상자 가운데 한 상자에서 검출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문제는 이들 등뼈가 광우병 유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면서 수입금지 대상으로 지정된 것이란 점이다. 일본 정부는 미국내에서 발생한 광우병 대책으로 지난 2003년 12월

## 국내영교육학 개강 5월 2일

모든 임직원들 불려와 공부할 기회가 대량영교육학에 처음으로 열려드립니다.

1. 리더십

2. 경영전략

3. 의사결정

4. 재무관리

5. 인사관리

6. 마케팅

**국내영고사학원 529-0090**

## 청정호수 전원주택단지 분양

무등산 자락에 푸른호수 맑은 시냇물 자연의 전원주택마을

**진원IN**

분양처: 진원IN

문의: 31-6070-2

## 달양산과

달양산과 백을 이어가는 달양산과에서 시제·제사상을 차려드립니다

1. 떡

2. 떡

3. 떡

문의전화: 061-383-8283